

일본문화

일본의 역사

22201941 권민경, 22202047 김희승, 22237287 이지은, 22201983 이예령, 22201925 김미주

원시시대

구석기시대(기원전 약 3만 년 ~ 기원전 1만 년경)

이 시기는 일본 열도에 인간이 처음 등장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주먹도끼나 뎀석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동굴이나 간단한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는 토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석기 시대의 일본은 아직 자연에 의존한 원시적인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조몬시대(기원전 약 1만 년 ~ 기원전 300년경)

조몬 시대는 밧줄 무늬가 있는 조몬 토기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시대에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사냥, 고기잡이, 열매 채집이 주된 생계 수단이었지만, 토기의 사용으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흙으로 만든 인형인 '도구(土偶)', 장신구, 간단한 의례문화도 나타나면서 정신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사회는 대체로 평등한 공동체 형태로 유지되었고, 농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시시대

야요이시대(기원전 300년경 ~ 기원후 250년경)

야요이 시대는 벼농사의 시작과 금속기의 사용이라는 큰 변화를 겪은 시기입니다.

중국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 철기가 전해지면서, 일본 사람들은 농사를 중심으로 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야요이 토기라는 더 정교하고 실용적인 토기도 만들어졌습니다.

벼농사를 통해 잉여 생산물이 생기자, 이를 가진 사람들이 점차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는 점점 계급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단 간의 갈등이나 전쟁의 흔적도 나타나며, 국가의 형태로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원시시대

구석기시대(기원전 약 3만 년 ~ 기원전 1만 년경)

- 인류의 유입

일본 열도는 당시 아시아 대륙과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시기를 통해 인류가 도래
초기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로 추정

- 생활 방식

생계: 사냥(사슴, 멧돼지 등), 채집(열매, 뿌리), 도구 제작
이동 생활: 주거지를 자주 옮김
주거: 동굴 또는 간단한 막사

- 도구와 유물

주먹도끼, 찰두기, 긁개 등 후기 구석기형 석기
뼈, 뿔, 나무 등 자연 재료도 활용

- 주요 유적지

이와지쿠 유적(岩宿遺跡, 군마현): 일본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입증한 대표 유적 (1949년 발견)

누마타카 유적(沼田貝塚, 도치기현): 후기 구석기 유물 다수 출토

원시시대

조몬시대(기원전 약 1만 년 ~ 기원전 300년경)

명칭 유래

'조몬'(縄文)은 '새끼줄 무늬'라는 뜻으로, 토기의 표면에 찍은 무늬에서 유래

- 생활 방식

정착 생활의 시작: 움집 건설, 마을 형성

풍부한 자연 환경을 활용한 복합 채집경제:

수렵: 사슴, 멧돼지 등

채집: 도토리, 밤, 열매 등

어로: 조개, 물고기, 해산물

-조몬 토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 중 하나

초기: 단순한 형태 → 후기: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

용도: 식량 저장, 요리, 의례 등

- 사회 • 문화

씨족 중심의 평등한 공동체

도우(土偶): 여성 형태의 점토 인형 → 다산과 풍요 기원

- 조몬 신앙: 애니미즘(자연 만물에 영혼 존재)

장례 풍습 존재 (매장 유적에서 확인)

- 주요 유적지

산나야마루야마 유적(三内丸山遺跡, 아오모리현): 대규모 취락, 저

장고, 의례장 등 확인

우에노 유적(上野原遺跡, 가고시마현): 일본 남부 지역의 조몬 유적

원시시대

야요이시대(기원전 300년경 ~ 기원후 250년경)

- 시대 구분 배경

도쿄의 야요이초에서 발견된 토기에서 명명
조몬 토기보다 단순하고 얇은 형태

- 농경의 도입

벼농사 본격화: 중국 남부나 한반도를 거쳐 기술 전래
습지농법 → 관개농법 발달
농기구(호미, 괭이 등)의 출현

- 금속기 사용

청동기: 의례용 도구(청동거울, 동검, 동탁 등)
철기: 농기구 및 무기 제작

- 사회 변화

농경으로 인해 잉여 생산물 → 계급 분화
수장(지도자)의 등장
마을 단위 집단 형성
고대 일본 국가의 기틀 마련

- 매장 문화

무덤 규모 확대 → 사회적 신분 차이 반영
목곽묘(木棺墓), 석곽묘(石棺墓) 등 다양한 매장 방식

- 주요 유적

요시노가리 유적(吉野ヶ里遺跡, 사가현): 대규모 방어 시설, 수장 거주지, 공동체 구조
다쓰카 유적(立花遺跡, 후쿠오카현): 벼농사 유적지

❖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년)

● 가마쿠라 시대란?

가마쿠라 시대(가마쿠라 막부)는 12세기 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무사들을 이끌고 가마쿠라를 근거지로 창설한 일본의 무가 정권을 의미한다.



❖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년)

● 막부(幕府)란?

막부는 일본의 중세·근세 시대의 기본 체제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취급하고, 실권은 쇼군(정이다장군)이 차지한 무신 정권 통치 기구에 해당한다.



막부의 계급

❖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년)

● 막부 정권의 유래

- 헤이안 시대 이후 왕권 추락
 - 지방 호족들의 장원 확대
 - 사회적 혼란
 - 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무라이 고용
 - 무사층의 성장

❖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년)

- 가마쿠라 시대의 문화
- 무사 문화와 서민 문화의 발달
- 군담 소설과 역사 소설의 등장
- 선종(신불교)의 등장



가마쿠라 시대를 대표하는 군담소설
헤이케모노가타리『平家物語』의 한 구절

❖ 가마쿠라 시대(鎌倉時代) (1192-1333년)

● 가마쿠라 시대의 쇠퇴

1274년과 1281년의 두 차례에 걸친 원(元)의 침략으로 인해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

➤ 두 번의 침략 시도때, 원의 침략을 막은 바람에 신풍(神風), 카미카제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공격 부대의 이름으로 불기도 하였다.

❖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4-16세기)

● 무로마치 시대란?

무로마치 시대(무로마치 막부)는 1338년,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킨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의 무로마치 지역에 막부를 세우고 통치한 것에서 명명되었다.



❖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4-16세기)

- 무로마치 시대의 특징

- 일본 역사 중 유일하게 천황이 두 명이었던 시대이다.
교토를 중심으로 무로마치 막부가 실권을 행사한 북조와,
옛 나라현인 요시노를 중심으로 하는 남조가 끊임없이
대립한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도 부른다.

❖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4-16세기)

● 무로마치 시대의 특징

무로마치 막부는 재정 기반과 군사력이 약하여, 지방에서 세력을 얻어 강해진 다이묘인 '슈고 다이묘'와 정치·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체제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후 다이묘들의 세력 대립으로, 오닌의 난(應仁の亂), 메이오 정변(明応の政変)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점차 붕괴되었다.

❖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4-16세기)

- 무로마치 시대의 문화
 - 수공업과 상공업의 발달
→시장이 생김, 유럽과의 무역 시작
 - 무사 문화와 귀족 문화의 융합
 - 불교의 전파, 크리스트교 유입



무로마치 시대를 대표하는
가무극(歌舞劇)인 노(能)

❖ 무로마치 시대(室町時代) (14-16세기)

● 무로마치 시대의 쇠퇴

쇼군의 후계를 차지하기 위해 지방의 슈고 다이묘들이 벌인 오닌의 난(應仁の亂)이 11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교토의 주요 건물이 소실, 무로마치 막부 체제가 붕괴되어 갔다.

이후, 새롭게 떠오른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15대 쇼군이 쫓겨나면서 무로마치 시대는 쇠퇴하게 되었다.

근세시대

전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에 의해 시작됨.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그 뒤를
이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열어 이후 260년 간
대대로 쇼군직을 계승하며 일본을 통치해 나감.

1.아즈치·모모야마 시대 安土桃山時代 (1573-1603)

노부나가의 거점인 아즈치성과 히데요시의 거점인
모모야마성에서 따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라고 함.
이 시기의 문화는 거상의 등장으로 호화롭고 웅장.
다도가 유행, 조선에서 끌려간 도공과 활자 기술자에 의해
도자기와 인쇄술 발달.



◆오다정권 (1573-1583)

- 센고쿠 시대의 막을 내린 작은 오와리국의 영주 오다 노부나가.
- 남다른 지략과 전술로 여러 나라를 정복 및 동맹관계를 맺으며 세력 확장 후 교토 진출.
- 1573년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교토로부터 추방시키며 무로마치막부 종식.
- 1576년 아즈치성 축조 후, 계속하여 반대세력 제거



▶ 오다노부나가의 아즈치성

-혼노지의 변: 전국통일을 목전에 둔 1582년 혼노지에서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의 습격을 받아, 혼노지에 불을 지른 후 자결로 생을 마감.



▶ 혼노지의 변

◆도요토미 정권 (1585-1603)

-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하시바 히데요시'가 아케치 미쓰히데를 무찌르고 노부나가의 후계자가 됨.
- 1586년 태정대신에 오른 히데요시는 '도요토미'라는 성을 하사 받고, 1590년 일본 통일을 이룩함.
- 권력을 잡은 히데요시는 농민 거병을 막기 위해 칼, 창, 철폭 등 무기를 징수하며 무사와의 신분 구별을 확고히 함.



- 전국적으로 농지의 상태, 면적, 수확고, 경작 농민 등을 조사하여 장원제를 폐지하는 등 정권의 안정에 힘씀.
- 명나라를 침략하고자 조선을 두 번에 걸쳐 침략했으나(임진왜란) 실패하고 전쟁기간 중 생을 마감.

2. 에도시대 江戸時代 (1603-1868)

17세기 초,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를 본거지로 창설한 에도막부가 집권하던 시대.

◆ 에도 막부 (1603-1868)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손에 줌.



- 1600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이시다 미쓰나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을 제압하고, 1603년 에도에 막부 설치.
- 교토, 오사카, 나가사키 등 주요 도시와 항만, 광산 등을 막부가 직접 지배.
직영지 제외 300여개의 번 설치, 막부의 규정 하에 각 번의 자치를 인정하는 막번 체제 실시.
- 영지는 쇼군이 지정, 참군 교대(각 번의 다이묘가 정기적으로 에도의 관직에 나가도록 함) · 개역제도(다이묘 등의 신분을 박탈하고 영지 등을 몰수하는 것) 등을 통해 다이묘와의 주종관계를 확고히 함.
- 적은 수의 무사가 백성을 지배하기 용이하도록 사농공상의 신분제도를 만들고, 세금 확보를 위해 술과 차를 금지함.



▶ 세키가하라 전투 기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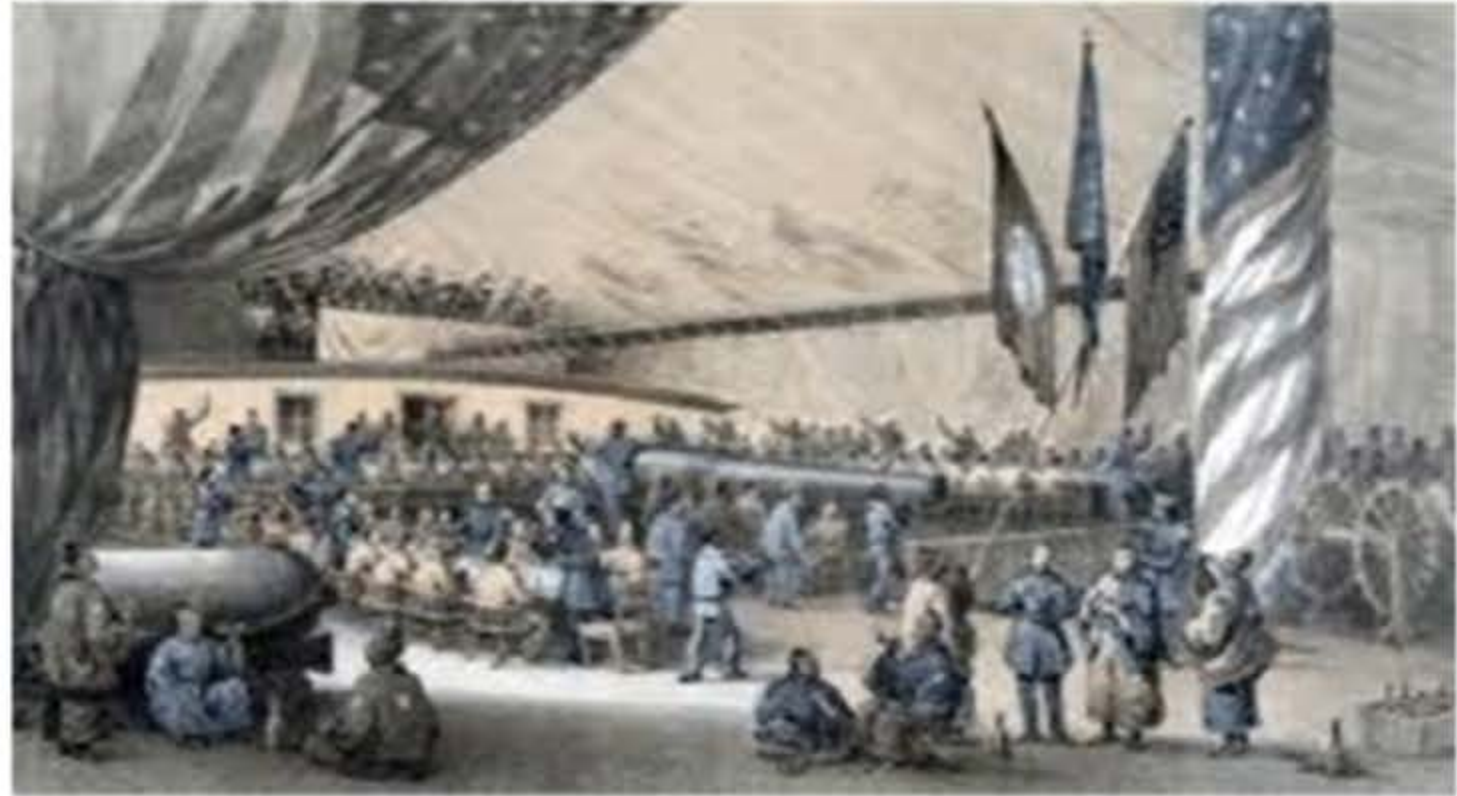
- 크리스ต์교가 국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침략을 염려하여 금교령을 내려 선교사를 추방하고 신자를 박해하고, 두 나라와의 무역을 금하는 쇄국정책을 펼침.
- 18세기에 들어 막부의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 재건을 위해 여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효과 미미.
- 무거운 세금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잇따르며, 경제의 발달로 농촌에서도 화폐를 사용하자 빈부 격차는 더욱 확대. 신분을 파는 무사가 등장하는 등, 신분제가 흔들리고 막번 체제 변질.

▶ 후미에 (크리스ต์교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상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새긴 동판이나 목판을 밟도록 한 방법)

◆막말 (1853-1868)

- 1854년 미국과 미일화친조약을 맺고 시모다와 하코다테 두 개의 항을 개항하며 쇄국정책 마감. 이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교류-> 조약에 의해 개항->쇼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짐
-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하급무사를 중심으로 천황을 존경하고 막부를 타도하자는 존왕도막 운동이 일어남.
- 1867년 15대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주며 에도막부는 막을 내림.
 - > 가마쿠라막부 설치 이후 7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무가정치가 끝나게 됨.

▶ 미일화친조약



◆ 에도시대의 문화

- 막부는 서양과의 교류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나,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네덜란드와의 교역을 허가.
- 나가사키에 들어오는 중국문화와 서양문화가 지식인의 호기심 자극. 이로 인해 서양학과 의학, 한방의학이 발달.



- 에도시대의 문화는 조닌(에도시대 상인과 장인 계층)의 문화로, 문학은 소설문학을 중심으로 발달, '하이쿠'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형시 등장.
- 교토에서는 염색 기법의 하나로 인물, 꽃, 새 등의 화려한 무늬가 특징인 '유젠염색'이 발달

- 아리타와 구타니 등에서는 일본을 대표하는 도자기가 만들어짐
- 신사에서 춘 춤에서 시작된 가부키도 에도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



- 우키요에라는 판화그림이 19세기 후반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줌.
- 막부는 무사의 자녀들에게 주자학을 교육, 데라코야라는 교육기관이 생겨 서민도 교육 받을 기회를 얻음. 데라코야는 서민 아이들에게 읽기·쓰기, 계산 등을 가르침.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배경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의 전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에도 막부를 세운 이후로, 근세 일본은 200년 넘게 에도 막부의 지배하에 있었다.

-막부 체계는 도쿠가와 가문의 근거지인 에도에 세워진 막부가 300명 정도의 지역 영주인 다이묘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며, 다이묘 밑으로는 사농공상의 엄격한 신분제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무라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무사 계급내에서 에도 막부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다이묘란?-다이묘중세 일본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다이묘라는 칭호는 본래 '오오나누시'라는 단어가 변화하여 생겼다.'나누시'란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자', 즉 봉건사회에서 제대로 된 성씨를 칭할 수 있는 한 마을의 실권자를 뜻하고, 여기에 '크다'라는 의미가 붙어 규모가 커지면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는 호족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하지만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무라이라고도 불리는 일본의 무사 계급내에서도 막부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로 접어들었다.

-1865년부터 막부는 본격적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진행시켰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군대에 서양 무기와 서구식 훈련을 도입했고, 서양의 과학 기술과 학문을 배우고자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도시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네덜란드를 통해 서양의 학문과 기술, 문화가 들어왔다. 이를 '난가쿠' 라고 부르며, 일본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들여온 외국 문화의 예시

난가쿠: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과 기술, 문화
커피와 식물 등의 서양 문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도시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
- 메이지 유신이 끝나는 시기를 중앙 집권을 이룬 1871년의 폐번치현(廢藩置縣)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길게 보아서 1889년 대일본제국 헌법이 공포되는 시점까지 이다.
 - 1870년대 중반이 되자 정부의 개혁에 분노한 사족들의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871~73년 기간에 서양으로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이었다.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1872년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일본 최초의 철도가 개통되었다.

-1880년대 철도 투자 붐에 힘입어 1890년에는 일본의 총철도 연장 길이가 약 2,250km에 달하게 되었다.

-1871년 엔을 공용 화폐로 정하고, 1880년대에는 유럽 방식을 본떠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유일한 발권 은행으로 지정하였다.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1881년 정부는 천황에게 1890년까지 헌법을 발효시킨다는 칙유를 발표하게 하였으며, 1882년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독일 제국의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



메이지유신 이란?

- -메이지 유신이란 19세기 일본이 막부를 타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복구하여 정치·경제·문화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일련의 개혁을 의미한다.

-1870년대 중반이 되자 정부의 개혁에 분노한 사족들의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정부에 반발하는 사족은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과거 유신에 함께했던 동료들 중에서 일부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에 분개한 진보적 사족들로, 정부에 권력의 문호를 넓히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1881년 정부는 천황에게 1890년까지 헌법을 발효시킨다는 칙유를 발표하게 하였으며, 1882년 이토 히로부미를 유럽으로 파견하여 독일 제국의 제도를 연구하게 하였다.

-1883년에 귀국한 이토는 이노우에 고와시와 함께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1889년 2월 천황이 국민들에게 선물로 하사하는 형식으로 대일본제국 헌법이 발표되었다.

다이쇼란?

- -다이쇼란 다이쇼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으로, 1912년~1926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됐던 시기이다.

다이쇼란?

-다이쇼란 다이쇼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으로, 1912년~1926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됐던 시기이다.

-다이쇼 연호는 1331, 1652, 1658, 1684년 등 총 4번 후보에서 탈락한 뒤 선정되었다.

이 연호를 쓰던 시절의 천장절(천황탄생일)은 10월 31일이었다. 본래 다이쇼 천황의 생일은 8월 31일이었지만, 그날이 한여름이라는 이유로 천장절 날짜를 실제 생일보다 2달 뒤로 늦췄다.

다이쇼란?

- -다이쇼란 다이쇼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으로, 1912년~1926년에 해당한다.
- 이 시기 한국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됐던 시기이다.

사건 사고

간토 대지진-간토 대지진 또는 한국에서는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다이쇼 12년) 11시 58분(일본 표준시)에 일본 도쿄도 등을 포함한 미나미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해구형 지진이다.

가메이도 사건-가메이도 사건은 1923년 일본의 간토 대지진 때 사설 무장 단체 자경단이 도쿄 일대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색출, 학살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도 약 6천명이나 학살당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란?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사이에 일어난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사조, 운동들을 일컫는 명칭이다.



쇼와 시대 란?

- -쇼와란 쇼와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기간 사용된 연호이다. 서력으로 1926년~1989년에 해당한다.

배경

-서기 1989년에 히로히토가 끝내 오랜 병환으로 사망하고 당시 그의 장남 아키히토 황태자가 삼종신기를 계승하면서 일본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하여, 연호는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교체되었다.

-연호의 의미는 '국민 평화와 세계 각국의 번영 및 공존 기원', 한학자 요시다 마사조가 고안해낸 것으로 《서경(書經)》 2장 우서 전의 백성소명 협화만방백성 각자의 덕이 밝혀짐에 따라 모든 나라가 협동 화합하고 백성이 크게 변하여 화합한다)에서 유래했다.

-64년 동안 사용된 연호이지만 쇼와 원년(1926년)과 64년(1989년)은 각각 일주일 정도만 사용되어 실제 기간은 62년 13일이다.

-서기 1989년(쇼와 64년)에 히로히토가 끝내 오랜 병환으로 사망하고 당시 그의 장남 아키히토 황태자가 삼종신기를 계승하면서 일본 제125대 천황으로 즉위하여, 연호는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교체되었다.

쇼와 시대 란?

- -쇼와란 쇼와 천황이 재위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이다. 일본 역사상 가장 기간 사용된 연호이다. 서력으로 1926년~1989년에 해당한다.

- 일본에는 쇼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낚은 세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옛날 사람같다'는 의미의 '쇼와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 한국에는 일제강점기 등 여러모로 아픔이 많은 시대였지만, 일본에는 최전성기가 쇼와 시대와 겹쳤다. 이 시기 전쟁을 통해 제국이란 칭호에 걸맞을 만큼 넓은 영토를 지배했다.
-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이 이끄는 일본 제국 해군 전력을 단숨에 모두 잃고 제공권까지 뺏긴 후 결국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맞으며 완벽하게 패전했다.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으며, 이후 더글러스 맥아더의 군대에게 지배받는 GHQ(연합군사령부) 체제에 들어서게 된다.
- 쇼와 시대는 일본의 폭주와 몰락 그리고 진정한 전성기의 시대였다. 워낙 시대가 길어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부터 전후 거품경제와 대중문화 발전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기나긴 시기다.



아스카시대(飛鳥時代)538~710

일본이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어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전환점이다.

야마토 정권이 아스카 지방을 본거지로 삼았던 시대.

1. 불교의 전래와 수용

-538년(또는 552년)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 문화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불교 수용에 대해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수용되었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었다.

-쇼토쿠 태자(聖徳太子)가 불교를 장려하며 많은 사찰을 세웠다. (대표적으로 호류지 法隆寺).

2. 중앙집권 체제의 정비

-쇼토쿠 태자는 604년에 '17조 헌법(十七条の憲法)'을 제정해 도덕적·정치적 지침을 제시했다.

-607년에는 중국 수나라에 사신(견수사)을 파견해 중국식 중앙집권 체제를 도입하려 노력했다.



아스카시대(飛鳥時代)538~710

일본이 고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하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되어 정치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전환점이다.

야마토 정권이 아스카 지방을 본거지로 삼았던 시대.

3. 율령제도의 도입 준비

-중국과 한반도(특히 백제, 고구려, 신라)의 영향을 받아 행정 체계와 법률(율령)을 정비하려는 시도를 했다.

4. 문화와 예술의 발달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으로 불교 미술, 건축, 공예가 발달했다.

대표적인 예: 호류지의 목조 건축물, 불상 등.

5. 나라 이전

-710년에 나라(奈良)의 헤이조쿄(平城京)로 수도를 옮기며 나라 시대로 넘어갔다.



고지키(古事記, 712)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

불교의 융성, 율령 체제의 정착,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서와 문학이 탄생한 시기이다.

1. 헤이조쿄 건설 (710년)

- 지금의 나라현 나라시에 해당한다.
- 당나라 장안(長安)을 본떠 만든 계획도시로, 일본 역사상 최초의 장기적인 수도이다.
- 중앙집권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2. 율령 체제의 확립

- 아스카 시대부터 준비하던 율령(律令)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다이호 율령(大宝律令, 701)과 요로 율령(養老律令, 718)**에 따라 관료제와 세금 제도 정비를 했다.

3. 불교의 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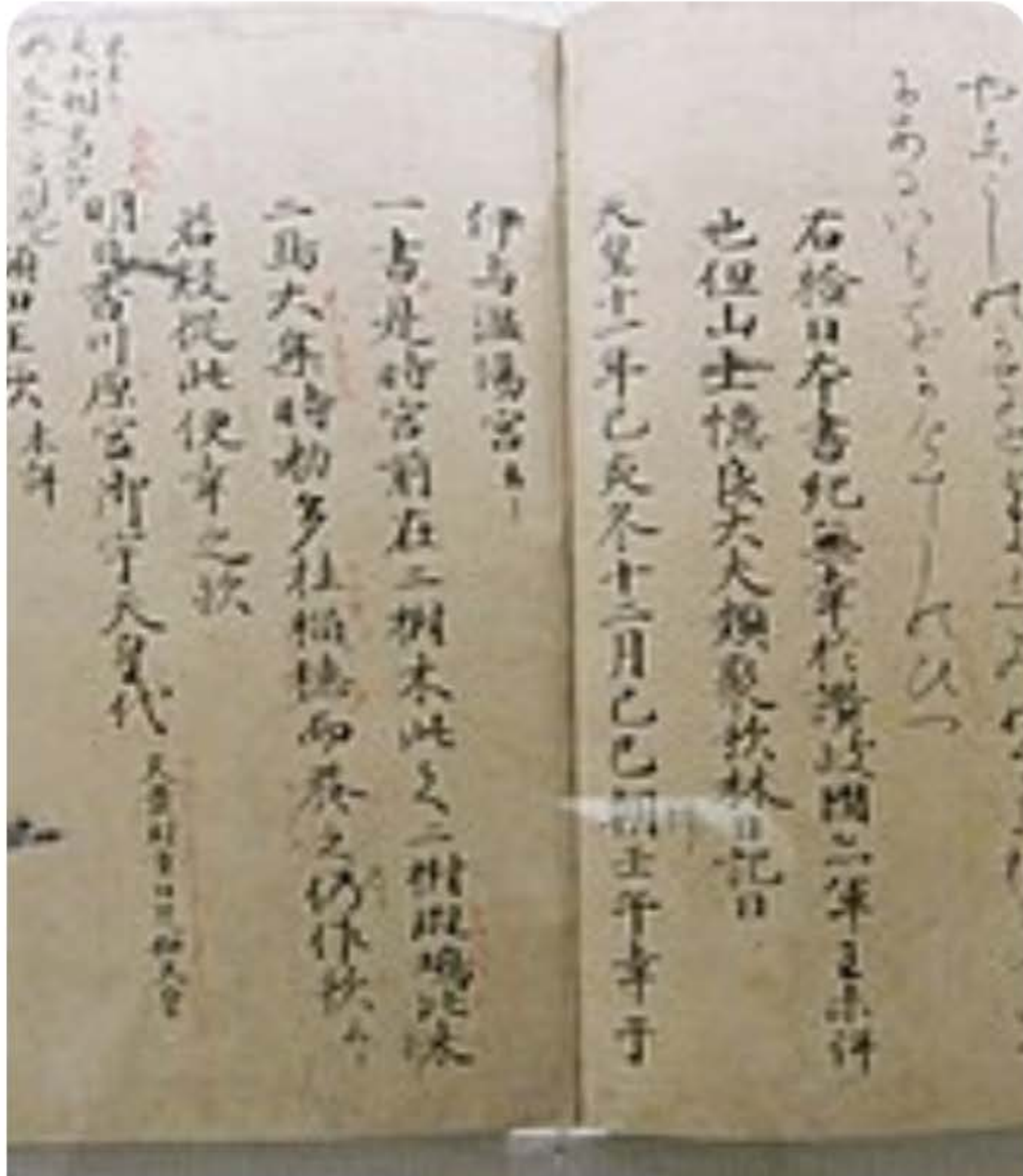
- 국가가 불교를 보호하고 장려했다. 특히 쇼무 천황(聖武天皇) 때 절정에 이르렀다.
- 도다이지(東大寺)와 그 안의 거대한 대불(大仏, 로쿠쇼부쓰)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
- 불교를 정치 안정의 수단으로 삼았다.

4. 귀족 중심의 정치와 사회

- 율령 체제는 표면적으로는 평등했지만, 실제로는 귀족 중심으로 흘러갔다.
- 백성들은 많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다.

5. 문학과 역사서의 탄생

- 나라 시대는 일본의 문학과 역사 편찬의 원점이다.
- 고지키(古事記, 712): 일본 신화와 역사 기록.



-만엽집(万葉集, 8세기 후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며 평민부터 황족까지 다양한 시인이 참여했다.

나라시대(奈良時代) 710~794

불교의 융성, 율령 체제의 정착,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서와 문학이 탄생한 시기이다.

6. 수도 이전과 시대의 끝 (794년)

-수도가 교토(平安京)로 옮겨지며 나라 시대는 끝나고 헤이안 시대로 넘어갔다.

*주요 인물

- 쇼무 천황(聖武天皇): 불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고 도다이지 대불을 조성했다.
- 겐쇼 여왕(元正天皇), 고켄 여왕(孝謙天皇): 여성 천황들이 비교적 많았던 시기이다.
- 교기(行基): 민중에게 불교를 전파한 고승이다.

*주요 유적과 문화재

- 도다이지(東大寺), 야쿠시지(藥師寺), 고후쿠지(興福寺) 등 사찰이 많다.
- 쇼소인(正倉院): 나라 시대 물품이 보관된 창고. 당시 국제 문화교류 흔적도 남아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1. 시대 개요

794년: 간무 천황이 수도를 나라에서 **헤이안쿄(平安京)**로 이전함.

약 400년간 이어진 시기로, 일본식 귀족 문화와 정치, 예술, 문학이 크게 발달함.

후반부에는 무사 계급이 부상하고, 결국 무사 정권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지.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2. 정치 구조의 변화

*전기: 황실과 귀족 중심.

-후지와라 가문(藤原氏)의 섭정 정치가 중심이었다.

특히 후지와라노 미치나가(道長)는 귀족 정치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천황이 실제 정치보다 상징적인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다.

*후기: 무사의 부상

-지방에서는 치안이 불안해지고, 무사(武士) 계급이 점점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겐지(源氏)와 헤이시(平氏) 같은 무사 가문들이 중앙 정치에 진출했다.

결국 1185년, 겐지와 헤이시의 싸움인 겐페이 전쟁(源平合戦)으로 헤이안 시대는 끝나고,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이 되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3. 문학과 예술의 황금기

- 헤이안 시대는 일본 고전 문학이 꽃핀 시기이다.
- 겐지 이야기(源氏物語): 세계 최초의 소설 → 무라사키 시키부(紫式部)라는 여성이 썼다.
- 마쿠라노소시(枕草子, 베개 밑의 책): 궁중 생활을 묘사한 수필 → 세이 쇼나곤(清少納言)이 썼다.
- 와카(和歌): 5·7·5·7·7 형식의 일본 고유 시가가 발달했다.
- 이 시기엔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엄청났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4. 문화와 종교

- 불교는 여전히 중요했지만, 점차 일본 고유의 신불혼합(神仏習合) 사상도 발전했다.
- 정토종(아미타불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상)이 서민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다.
- 헤이안시대의 미술은 섬세하고 화려했으며, 일본풍 회화인 야마토에(大和絵)가 유행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5. 사회 모습

- 귀족 중심의 사회였지만, 농민들은 세금과 부역으로 고통을 받았었다.
- 쇼엔(莊園)이라는 사유지 제도가 등장하면서 중앙의 통제가 약해졌고, 무사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6. 말기 – 무사 정권의 서막

- 헤이시(平氏)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겐지(源氏)와의 대결 끝에 1185년 단노우라 전투에서 패배했다.
-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가 승리하고, 가마쿠라 막부를 열게 되었다. → 무사(사무라이)의 시대가 개막했다.

헤이안시대(平安時代) 794~1185

일본 역사에서 매우 화려하고도 중요한시기이다. 수도를 헤이안쿄, 지금의 교토로 옮기면서 시작됐고, 일본 고유의 문화와 문학이 꽃피는 귀족의 황금기라고 불린다.

<요약>

항목	내용
기간	794~1185
수도	헤이안쿄(지금의교토)
정치	초반 : 귀족중심/후반 : 무사등장
대표문학	<겐지 이야기>, <마쿠라노소리>
문화	일본풍 회화, 불교-신도 융합, 정통종
종말	겐지VS헤이시전쟁->가마쿠라 막부 시작

현대시대

1. 메이지 시대 (明治時代, 1868-1912)

- 메이지 유신 (明治維新)

1868년, 도쿠가와 막부 붕괴 →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국가 출범

근대화 정책 추진:

폐번치현: 지방 영주 권한 박탈

징병제 도입, 학제 개혁

서양식 법률, 교육, 군대, 행정 제도 도입

- 산업과 경제

근대 산업 발전: 섬유, 제철, 조선 산업 중심

정치 경제 중심지: 도쿄(구 에도)

자본가 계층: 재벌(三井, 三菱 등)의 형성

- 대외 정책

불평등 조약 개정 추진

청일전쟁(1894-95), 러일전쟁(1904-05) 승리 → 제국주의적 팽창 시작

현대시대

2. 다이쇼 시대 (大正時代, 1912-1926)

- 정치 특징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 자유주의적 정치 분위기
정당 정치와 언론 자유, 노동 운동의 발전

- 국제 관계

제1차 세계대전(1914-18) 참전 → 승전국
21개조 요구로 중국 영향력 확대 시도

워싱턴 회의(1921): 해군 군비 제한 수용

- 사회와 문화

도시화 가속, 소비문화와 대중매체 확산

여성 해방 운동과 신여성 등장

현대시대

3. 쇼와 시대 (昭和時代, 1926–1989)

전반기: 전쟁과 군국주의 (1926–1945)

군국주의와 침략

1931년: 만주사변 → 만주국 수립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진주만 공격 → 태평양전쟁 발발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패전

- 전시 체제

국가 총동원법, 언론 통제, 징병 확대

식민지: 한국, 대만, 만주, 동남아시아 일부

후반기: 전후 재건과 경제 성장 (1945–1989)

미군 점령기 (1945–1952)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 → 일본 개혁 주도

1947년 헌법 제정:

입헌군주제, 평화헌법 제9조 (전쟁 포기)

여성 참정권 보장, 기본권 확대

- 고도 경제 성장기 (1950s–1970s)

한국전쟁 특수(1950–53): 대규모 경기 부양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도약

도카이도 신칸센 개통 (1964), 도쿄 올림픽 개최

-사회 변화

도시화, 핵가족화, 중산층 확대

환경오염,公害병 문제 발생 (미나마타병 등)

현대시대

4. 헤이세이 시대 (平成時代, 1989-2019)

버블 경제와 붕괴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

1991년: 버블 붕괴 → 장기 불황(잃어버린 10년)

정치 변화

자민당 중심 정치 → 잦은 정권 교체

1993년: 비자민 연립정권 등장

부정부패와 정치개혁 요구 증가

재난과 위기

한신대지진(1995),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동일본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사회 이슈

고령화 • 저출산 심화

비정규직 증가, 지역 격차

현대시대

사회적인 변화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동 인구가 줄고, 의료비나 복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는 일본 사회의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그리고 육아 지원 확대 같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

레이와 시대 초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관광업이 멈추고 소비도 줄면서, 일본 경제는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디지털화, 친환경 산업, 로봇 기술 등을 통해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 녹색 에너지 개발에도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와 국제 사회에서의 역할

일본은 여전히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음식 문화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사이에서 안보와 외교 전략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방위 예산 증가 같은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시대

5. 레이와 시대 (令和時代, 2019-현재)

시대	시기	특징
메이지	1868-1912	근대화, 산업화, 제국주의
다이쇼	1912-1926	민주주의적 분위기, 대중문화
쇼와 (전반)	1926-1945	군국주의, 전쟁, 패전
쇼와 (후반)	1945-1989	전후 복구, 경제 성장
헤이세이	1989-2019	버블 붕괴, 불황, 재해
레이와	2019-	고령화, 코로나, 정치 안정 모색

감사합니다

22201941 권민경, 22202047 김희승, 22237287 이지은, 22201983 이예령, 22201925 김미주